

朝鮮과 琉球의 交流樣相과 『고려대장경』*

최연주**
yjchoi@deu.ac.kr

<目次>

- | | |
|-----------------------|--------------------------|
| 1. 序論 | 3.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고려대장경』 傳來 |
| 2. 琉球의 『고려대장경』 求請과 意圖 | 4. 結論 |

主題語: 『高麗大藏經』(Tripitaka Koreana), 朝鮮(Joseon Dynasty), 琉球王國(Kingdom of Ryukyu), 交隣政策(A good-neighbor policy), 海上交流(The interchange in the sea)

1. 序論

류큐(琉球)왕국은 12세기를 기점으로 주변세계의 영향을 받아 원시적 수렵채집 경제단계에서 농경·철기시대로 겨우 전환하였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각 지역에 농업 취락이 생겨났고, 이들을 통합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지역공동체는 구스크(グスク)라는 성(城)을 쌓고 서로 경쟁하였다. 그들은 수장을 아지(按司)라 부르고 부와 권력을 장악하면서 정치세력으로 군림하였다. 14세기 중반에 북산왕(北山王), 중산왕(中山王), 남산왕(南山王)으로 불리는 삼산(三山)시대가 전개되었다.¹⁾

류큐의 패권(霸權)을 둘러싸고 각 국은 전쟁으로 대립이 격화되었다. 1406년에 작은 아지 출신인 사소(思紹)가 중산을 공격하여 중산왕 무녕(武寧)을 축출하고, 그 세자의 명의를 가지고 거짓으로 명(明)에 책봉을 요청하였다. 사소에 의해 출발한 왕조를 제1상씨(尙氏)왕조라 한다. 사소의 아들 상파지(尙巴志)는 아버지를 도와 우라소에(浦添)에서 슈리(首里)로 왕도(王都)를 옮기고 북산을 병합하였다. 곧 왕권 강화에 노력하면서 1429년 남산까지 멸망시켜 비로소 통일된 류큐왕국을 성립하였다. 그 후 북으로 일본, 서로는 중국·조선, 남으로는 동남아시아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3AA017).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부교수

1) 정성일 외(2000)『朝鮮과 琉球』아르케 ; 손승철(1992)「朝鮮前期 對琉球交隣體制的 構造와 性格」『서암 조항래교수 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아세아문화사

아 제국(諸國)을 서로 당기는 섬의 지리적 특성을 발휘하여 그 나라와의 중계교역국가로 변영을 누렸다.²⁾ 한편 중산왕 찰도가 통일전쟁 중인 1389년 처음으로 고려에 사신을 보낸 이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교린관계에 입각한 교류로 이어졌다.³⁾

고려·조선과 류큐 교류에 대한 연구는 대외관계, 피로인의 쇄환, 상호 인식 및 비교 연구, 우라소에성(浦添城)에서 출토된 고려기와 등에 편중되었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역대보안(歷代寶案)』 등에 사료가 국한되고, 출토된 문화재와 물질문화는 토기와 기와 등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강화경판(江華京板)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이하 『고려대장경』으로 약칭함) 관련 논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대장경 전래와 연관하여 교역품, 서적, 선박 기술 등에 관한 내용과 함께 논의하였고, 일부 양국 문물 교류를 다루는 과정에서 항목으로 구분해 부분적인 검토가 있었다.⁵⁾ 이러한 연구 경향은 『고려대장경』을 매개로 한 상호 교류보다는 조선으로부터 일방적인 전래였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로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15세기 일본의 경우 『고려대장경』 교류를 매개로 활발한 교역을 전개하였고, 각종 불교문화를 수용해 불교를 한층 더 발전시켰다.⁶⁾ 류큐는 국가 규모 및 문화 수준은 일본과 달랐지만, 조선으로부터 『고려대장경』 인경본(印經本)을 입수하려는 배경은 불교발전은 물론 사상과

2) 宮里 正子(2006)「ティダ 琉球の太陽」『うるま ちゅら島 琉球』九州國立博物館, p.7

3) 고려와 조선, 류큐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西谷 正은 3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1981)「高麗・朝鮮 兩王朝と琉球の交流-その考古學的研究序説」『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26, 九州大). 한편 한국에서 고려와 류큐 교류에 대해서 처음 논의한 연구자는 김상기이다(1961)『고려시대사』동국문화사, pp.810-811).

4) 한반도와 류큐 교류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경로로 진행되어 왔음은 기왕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에서 한반도의 나랑계 토기가 출토된 바 있으며, 류큐의 야광조개를 재료로 한 물품이 한반도, 일본, 중국에까지 운반된 적이 있는데 그 시기를 7-8세기로 추정한다. 그리고 우라소에의 성터에서 고려기와(高麗瓦)가 발굴되었는데, 고려 삼별초군(三別抄軍)과 관련 깊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를 통해 양국은 공식적인 사신 교류 이전부터 다양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류큐의 미술공예품들이 아시아 각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독자적으로 발달하였는데, 그 중에서 쓰보야 도자기(壺屋焼)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끌려간 도공이 전해준 기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특정 시기뿐 아니라 여러 시기에 걸쳐 양국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양수지(1994)『朝鮮・琉球關係研究-조선전기를 중심으로』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및 (2012)「세조대의 유구사신 응접과 문물교류」『동북아 문화연구』33; 최규성(1998)「高麗 기와제작기술의 琉球傳來」『古文化』52; 최인택(2000)「한국에 있어서의 오키나와 연구의 과제와 전망」『일본학년보』9; 上原 靜(2001)「오키나와(沖繩諸島) 출토 고려계(高麗系) 기와에 대하여」『비교문화연구』7; 安里 進(2007)「琉球왕국의 역사와 문화」『탐라와 琉球왕국』제주: 국립제주박물관; 윤용혁(2009)「오키나와 출토의 고려 기와와 삼별초」『한국사연구』147; 허경진·조영심(2012)「조선인과 류큐(琉球)인의 소통 양상」『일어일문학』54

5) 손승철(1994)「조·유(朝・琉) 교린체제의 구조와 성격」『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지성의샘; 하우봉(1994)「朝鮮前期 對琉球關係」『국사관논총』59; 이원순(1995)「『歷代寶案』을 통해서 본 朝鮮前期의 朝琉關係」『국사관논총』65

6) 최연주(2008)「『高麗大藏經』의 韓日交流과 인식추이」『일본근대학연구』19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당시 류큐와 일본은 불교 교리, 그리고 관련 문화가 일정 수준에 발달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국내 정세의 혼란과 기술상의 제약 때문에 대장경을 조성(彫成)할 수 없었다. 이에 고려와 조선에 대장경을 구청(求請)하여 전래받고자 하였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선과 류큐의 교류 과정에서 『고려대장경』 구청을 통해 류큐왕실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바가 무엇인지 또 이를 입수하기 위해 시행했던 외교적 노력 등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류큐의 『고려대장경』 구청에 따른 조선의 전달 추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논하고, 변화요인과 관련해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양국의 국내 정세를 함께 살펴보았다.

2. 琉球의 『고려대장경』 求請과 意圖

한국사에서 류큐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려 창왕(昌王) 때이다. 이때는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기로서 정국은 격변기였다. 당시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는 최영을 귀양보내고, 우왕을 강화도로 내쫓았다. 그리고 신진사대부 중심인물인 거유(巨儒)인 이색의 협력을 받아 9세에 불과한 우왕 아들 창을 왕으로 세우고 권력을 장악하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산왕 찰도가 스스로 신(臣)이라 칭하는 표문을 창왕 원년(1389)에 보내왔다.

8월 류큐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 찰도(察度)가 옥지(玉之)편에 신하를 칭하는 표문을 보내면서 왜적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한편 그 나라 특산물인 유황(硫黃) 3백근, 소목(蘇木) 6백근, 호추(胡椒) 3백근, 갑옷 20벌을 바쳤다. 앞서 전라도 관찰사로부터 “류큐 국왕이 우리나라가 대마도 정벌에 나선다는 말을 듣고 서신을 보냈는데 그들이 지금 순천부(順天府)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보고가 올라오자 도당(都堂)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어떻게 접대할까 난감해 했다. 창왕이 “먼 나라 사람이 와서 공물을 바치는데 박하게 대하면 옳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들을 개경으로 오게 해 잘 위로하여 보내야 할 것이다.”고 하며 전판사(前判事) 진의귀(陳義貴)를 영접사(迎接使)로 삼았다. (『高麗史』 권137, 창왕 원년)

중산왕 찰도는 고려 환심을 사기 위해 왜구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던 고려인들을 돌려보내는 이른바 피로인(被虜人) 송환을 선택하였다. 찰도가 고려에 표문을 보내온 것은 삼산의 극한 대립 속에서 정치적 입지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이다. 당시 류큐는 삼산(三山)시

대로서 1372년 중산왕 찰도, 1380년 남산왕, 1383년 북산왕이 각각 명(明)과 조공관계를 맺게 되어 대외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자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창왕은 옥지(玉之) 등이 귀국할 때 전객령(典客令) 김윤후(金允厚), 부령(副令) 김인용(金仁用)을 답례사로 함께 파견하였다. 회답한 글에서 이번에 일부러 사신을 파견하여 글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귀한 선물과 함께 포로로 있는 고려인들을 송환하여 주니 기쁜 심정을 말로 다하기 어렵다며 피로인 송환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였다. 1년 뒤인 공양왕 원년 8월에 찰도는 다시 사신을 보내 문봉(聘問)하고, 왜구에게 사로잡혀 간 고려인들을 돌려보냈다.⁷⁾ 이듬해 류큐에 답례사로 파견되었던 김윤후 등이 귀국할 때 찰도가 다시 옥지 등을 보내어 신하를 칭하며 표문을 올리고, 고려인 37명을 돌려보내며 토산물도 받쳤다.⁸⁾ 얼마 지나지 않아 창왕이 폐위되고 공양왕이 옹립되었으나,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다. 급변하는 정세에도 찰도는 신하라 칭하는 표문을 연이어 보냈는데, 양국 왕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양국 교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으나, 왜구에 의해 납치된 피로인 송환을 매개로 긴밀한 관계는 유지되었다.

조선 건국에 이어 1429년 류큐가 통일왕국으로 성립되자 교류는 증가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한 달 뒤 중산왕이 사신을 보내 조회하였고,⁹⁾ 그 해 12월에는 스스로 신하라고 칭하면서 예물을 바치고 포로 8명을 송환시켰다.¹⁰⁾ 여기서 스스로 신하라 칭하였다는 것은 사대(事大) 관계를 수립한 듯 보이지만, 당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본다면 교린(交隣)관계이다. 양국은 명(明)과 조공관계를 맺었고, 명이 멸망할 때까지 명 중심의 책봉(冊封) 체제 속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명의 책봉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교린관계¹¹⁾라 할 수 있다. 조선이 류큐에 사신을 처음 파견한 것은 태종 16년 1월이며, 위민(爲民)정책과 관련이 깊다.

전호군(前護軍) 이예(李藝)를 류큐로 보냈다. 임금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왜(倭)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류큐로 팔려간 자가 매우 많다는 말을 듣고, 명하여 이예로 하여금 쇄환(刷還)하도록 요청하게 하였다.
(『太宗實錄』 권31, 태종 16년 1월 27일)

태종의 사신파견 목적은 포로인 쇄환으로 대일(對日)외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이예를 파견하였다. 하지만 호조 판서 황희(黃喜)는 류큐에 이르는 수로(水路)가 멀고 험하

7)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원년 8월

8)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2년 8월 및 『고려사』 권45, 공양왕 2년 8월 정해

9)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18일

10)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12월 28일

11) 손승철(2000) 「朝・琉 交隣體制의 구조와 특징」 『朝鮮과 琉球』 아르케, pp.44-45

며, 사람을 보내면 번거롭고 대단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반대하였다. 태종은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데 귀천(貴賤)이 따로 없으면서 강행하였고, 7월 23일 이에는 44인을 추쇄(推刷)하여 돌아왔다.¹²⁾ 류큐에 사신 파견은 위민정책과 연계되어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류큐와 교류를 통해 일본 또는 대마도 왜인을 견제하고 왜구를 물리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다. 한편 류큐는 동남아시아 제국(諸國)의 물산을 명(明) 또는 일본과 중계무역하면서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한편 국가 위상은 높이고자 하였고, 두 나라와 인접해 있는 조선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응하였을 것이다. 조선·류큐간 교류과정에서 『고려대장경』 인경본은 수시로 등장한다. 경판 수가 8만매에 달하고, 인경(印經)하면 16만 여장에 이르러는 거질(巨帙)의 『고려대장경』 인경본¹³⁾이 여러 차례 조선에서 류큐로 보냈다는 사실은 단순히 물자 교류 차원만 아닐 것이다. 이에 『고려대장경』을 매개로 한 교류 추이에 대해 논의해 보자. 류큐가 조선에 대장경을 구청한 것은 세조 1년(1455)을 비롯하여 7년(1461), 13년(1467), 성종 2년(1471) 2회, 10년(1479), 14년(1483), 22년(1491), 연산군 6년(1500) 등이다. 이와 관련된 사료를 일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1) 류큐 사자(使者)인 왜승(倭僧) 도안(道安)이 반열(班列)을 따라 국왕 상태구(尙泰久)의 서계(書契)를 올리고, 이어서 화석(花錫)·소목(蘇木) 각각 1천근(觔)을 바쳤다. 임금께서 “우리나라에서 표류한 사람들을 두 차례나 쇄환하니 매우 기쁘다.” 말씀하시니, 도안이 “장경(藏經)을 얻어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뢰었다. (『世祖實錄』 권2, 세조 1년 8월 25일)

가-2) 류큐 중산왕(中山王)이 보수고(普須古)·채경(蔡璟) 등을 보내어 와서 토물(土物)을 바치고, 표류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자문(咨文)은 이러하였다. “-중략. <저희 나라에는> 장경(藏經)이 희소하므로 지난번에 사람을 보내어 구하여 청하였는데, 성상께서 내려 주시니 감격하여 나라에 이르러 깨우침을 열어 주고, 큰 길상(吉祥)의 서광(瑞光)을 내리어 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천계선사(天界禪寺)를 건립하였으나 경전이 없다고 하므로, 삼가 정사 보수고·부사 채경 등을 보내어 삼가 자문과 예물을 가지고 <성상의> 앞에 나아가 구하기를 청합니다. 전과 같이 대장경 전부를 나라에 보내어 주시어 영구히 나라를 진무(鎭撫)하게 하여 주시면 아주 다행입니다. -하략” (『世祖實錄』 권26, 세조 7년 12월 2일)

가-3) 류큐국왕 사신 승려 자단서당(自端西堂) 등이 하직하였다. 그 답서(答書)에 “-중략. 별폭(別幅)에는 백세면포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호피(虎皮)·표피(豹皮) 각 2장,

12)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7월 23일

13) 최연주(2006) 『高麗大藏經研究』 경인문화사, p.141

잡채화석(雜彩花席) 6장, 대장경(大藏經) 1부, 운판(雲板) 1사, 중고(中鼓) 1면, 대경(大磬) 1사, 중요발(中鑊) 1사”라고 말하였다. (『成宗實錄』 권13, 성종 2년 12월 13일)

가-4) 류큐국왕 상덕(尙德)이 사신을 보내어 와서 빙례(聘禮)를 올렸다. 그 서계(書契)에 “-중략- 그러하므로 바라는 바는 대장경 1부와 면주(綿紬), 목면(木綿) 약간 필(匹)이며, 삼가 드리는 토산물은 별폭(別幅)에 갖추니다.”고 하였다. (『成宗實錄』 권105, 성종 10년 6월 22일)

『고려대장경』 구청은 류큐의 일방적 요청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조선은 총 9차례 구청에 대해 3차례는 거부하였는데, 다른 불경으로 대체된 세조 13년¹⁴⁾과 사자(使者)의 진위문제인 위사(僞使)로 판단했던 성종 2년 중 1차례, 14년을 제외하고는 『고려대장경』을 사급하였다.¹⁵⁾ 대장경 구청에 대해 조선이 적극적으로 응하였던 이유는 문물의 우수함을 과시하려는 의도와 사대교린체제 하에 같은 중화문화권의 형제국가라는 명분¹⁶⁾때문이다. 그래서 『고려대장경』만 하사뿐 아니라, 『금강경(金剛經)』·『법화경(法華經)』·『사교의(四教義)』·『성도기(成道記)』·『심경(心經)』¹⁷⁾ 등 수십 종의 전적(典籍)을 별도로 하사하였다. 『고려대장경』 이외의 다양한 불교 경전이 전달된 사실을 통해 류큐 불교 발전의 토대는 조선에서 건네진 불교 전적임을 알 수 있다.

류큐가 『고려대장경』을 필요로 했던 배경은 무엇일까. 류큐는 불교를 융성시켜 국가 안녕을 기원하려는 진호(鎮護)국가 기원 성격이 강했기¹⁸⁾ 때문에 불교의 핵심인 대장경 즉 인경본 『고려대장경』 확보가 시급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정치 상황과 더불어 문화적 수요 등과 연관이 깊을 것이다. 14세기 중반 접어들면서 오키나와는 3개의 작은 국가로 성립되었는데, 각 지역에 따라 북산왕·중산왕·남산왕으로 불렸고 이를 삼산시대라 한다. 우라소에 구스쿠를 거점으로 한 찰도의 중산국에 대항하여 북쪽과 남쪽에 북산왕권과 남산왕권이 등장하면서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다. 1372년 중산왕 찰도가 명으로부터 조공을 요구하는 국서를 받게 되었고, 국서를 받은 찰도는 정치적 입지 강화와 조공무역 이익을 고려하여 명과 조공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1380년 남산왕, 1383년 북산왕이 각각 명과 조공관계를 맺자 대외적으로

14) 『세조실록』 권43, 세조 13년 8월 14일

15) 다수 연구자들은 류큐의 『고려대장경』 구청은 일본의 필요성에 의한 것, 즉 위사(僞使)에 의한 것으로 상당수는 류큐로 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원순(1995) 앞의 논문, pp.36-37 ; 손승철(1994) 앞의 논문, pp.109-110

16) 양수지(2012) 앞의 논문, p.215

17) 『세조실록』 권27, 세조 8년 1월 16일. 한편 세조 13년 8월에 『성도기(成道記)』·『법화경(法華經)』 등 28종과 『법경론(法鏡論)』·『법화경(法華經)』 2부 등 37종을 각각 하사한 바 있다(『세조실록』 권43, 세조 13년 8월 14일·17일).

18) 馬場久幸(2014) 『『高麗再雕大藏經』の日本流通と活用』 『石堂論叢』 58, pp.229-230

동등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 삼산은 그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다. 이러한 삼산시대의 전란을 제압한 것은 사사키(佐敷)지방의 무장 상사소(尙思紹)와 그의 아들 상파지(尙巴志)였다. 1406년 내륙의 작은 아지 출신인 사소가 중산을 공격하여 중산왕 무녕(武寧)을 축출하고, 그 세자의 명의를 가지고 거짓으로 명에 책봉을 요청하였다. 사소에 의해 출발한 왕조를 제1상씨(尙氏) 왕조라 한다. 그 아들 상파지는 아버지를 도와 왕도(王都)를 우라소에서 슈리로 옮기고, 북산을 병합하였다. 사소에 이어 상파지가 즉위하자 수리성을 본격적으로 정비하여 왕권강화에 노력하면서 1429년 남산까지 멸망시켜 비로소 통일된 왕국이 성립되었다.¹⁹⁾ 통일 이전 삼산은 각각 종족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왕조의 출범에 따라 보편적 이념이 필요했던 것이다. 불교를 내세워 종교 사상적 통일을 도모하면서, 그들의 통치 기반을 확대시키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삼산 통일을 계기로 불교는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제1상씨 왕조의 상파지로부터 열도 전체를 통일한 제2상씨 왕조의 상진(尙眞)에 이르기까지 대략 100여 년간 류큐는 중국 정치제도를 수입함과 동시에 불교를 통일왕조의 사상적 구심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²⁰⁾ 통일을 이룬 상씨 왕조는 그들의 왕권강화와 통일왕조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불교 발흥으로 많은 사찰이 건립되자 안치(安置)할 대장경이 필요했을 것이다. 다음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큐국왕이 야차랑(耶次郎) 등을 보내어 내빙(來聘)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류큐국왕 상원(尙圓)은 조선 국왕 전하께 글을 받들어 올리나이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귀국(貴國)과 누방(陋邦)은 바닷길이 요원하여 항상 왕복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함을 한탄하였습니다. -중략- 우리나라에 안국사(安國寺)라는 절이 있사온데, 개국 초기의 선찰(禪刹)로서 복을 비는 신령한 도량이기도 합니다. 그러하오나 삼보(三寶) 가운데에서 아직도 법보(法寶)를 갖추지 못하였으니, 실로 결전(缺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두 차례나 부상(扶桑)사람 신사랑(新四郎)을 보내어 비로법보(毗盧法寶) 1장을 구하였사오나, 회보해 온 글에 유시하시길, ‘여러 곳에서 구해 감에 이제 없다.’고 하였습니다. 존명(尊命)이 이미 멀리 왔사오나 과인이 원하고 바라던 마음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특별히 전사(專使)를 거듭 보내어 이의 구함을 전달하옵니다. -하략-”

(『成宗實錄』 권220, 성종 22년 12월 2일)

류큐국왕 상원(尙圓)은 남방교역을 통해 확보한 귀한 물품들을 받치면서까지 동아시아에서 가장 정확하고 거질(巨帙)인 『고려대장경』 인경본을 구청하였다. 삼보(三寶) 중 하나인 법보(法寶)인 대장경을 안국사(安國寺)에 안치할 목적으로 요구하였다. 동시에 사찰 건립을 위한

19) 류큐 통일과정에 대해서는 민덕기(2000) 「琉球의 역사」 『朝鮮과 琉球』아르케, 상론하고 있으므로 참조
20) 秋山謙藏(1935) 「琉球國王の勃興と佛教」 『日支交渉史話』内外書籍, p.181

재정적인 원조까지도²¹⁾ 요청하는 등 불교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조선에서 지원받고자 하였다. 한편 류큐 불교는 대략 13세기 중엽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이 시기에 이르러 극성하였는데, 다음 사료에서 그 기원을 알 수 있다.

함순년간에 선감이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는 알지 못한다. 일찍이 한 척 때(葦)로 만든 가벼운 배를 타고 표연히 소나하진(小那霸津)에 이르렀는데, 세상에서는 그 이름을 청하지 않고 다만 보타락승이라고만 하였다. 조선인인지, 일본인(扶桑人)인지 오래된 일이라 알 수 없다. -중략- 우라소에성 서쪽에 절(精舍)을 지어 그곳에 거처하게 되었다는데, 이르기를 보타락산 극락사라 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불교의 시작이다.

(『琉球國由來記』 10, 諸寺舊記 序)

함순(咸淳)년간(1265~1274)에 센칸(禪鑑)²²⁾이라는 선사가 불교를 전하면서 극락사를 건립하였는데 이것이 류큐 불교의 시작이다. 승려 센칸의 도래 연대는 영조대왕(1260~1299)대로서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사찰이 계속 건립되자 각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대장경이 필요하였는데, 예를 들면 세조 7년에 천계선사(天界禪寺)가 건립하였으나 경전이 없어 대장경을 구청한²³⁾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당시 불교 교리와 교학적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사찰·불상·승려 등 양식은 조선과 유사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표류했던 제주사람 김비의(金非衣)·강무(姜茂)·이정(李正) 등이 류큐로부터 돌아와 그 나라의 풍속을 말하자 너무 기이해 성종이 홍문관(弘文館)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중략- 사찰은 판자로써 덮개를 하고, 안에는 옷칠을 했으며, 불상이 있는데 모두 다 황금이었고, 거승(居僧)은 머리를 깎았으며 치의(緇衣)도 입고 백의(白衣)도 입었으며 그 가사(袈裟)는 우리나라와 같았습니다. (『成宗實錄』 권105, 성종 10년 6월 10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제도와 복식(服飾) 등은 중국 제도를 많이 참조한²⁴⁾ 것으로

21) 류큐 사신들이 대장경 구청 뿐 아니라 사찰 건립에 필요한 경비까지도 원조를 요청했을 때 조선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현중(1981)「朝鮮初期의 對外關係」『한국사』9, 국사편찬위원회, p.460

22) 外間守善은 센칸(禪鑑)을 일본 승려로 본 반면, 윤용혁은 고려 승려로 추정하고 있다. 外間守善, 심우성 옮김(2008)『오кина와의 역사와 문화』동문선, p.61 ; 윤용혁(2012)「우라소에성(浦添城)과 고려·류큐의 교류사」『사학연구』105, pp.63-69

23) 『세조실록』권26, 세조 7년 12월 2일

24) 『海東諸國記』「류큐국기」및「보(補) 류큐국」

보아 명·조선과 유사한 부분도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려 모습은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찰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당시 류큐 불교에 대한 현황을 엿볼 수 있지만 당시 표류민이 어디의 사찰을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성격이 다른 사찰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721년에 간행된 『中山傳信錄』²⁵⁾을 통해 다양한 성격의 사찰이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1) 임해사(臨海寺)은 북쪽 포대(砲臺) 긴 독 가운데 있는데, 국왕이 기보소(祈報所)로 삼았다.

나-2) 호국사(護國寺)은 파상산(波上山) 고개에 있는데, 국왕의 기도소(祈禱所)이다.

나-3) 원각사(圓覺寺)은 왕궁 북쪽 구경문(久慶門) 밖에 있는데, 국왕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다.

나-4) 동선사(東禪寺)은 구미(久米) 동북쪽에 있는데, 원각사 하원(下院)이다.

나-5) 광엄사(廣嚴寺)은 천존묘(天尊廟) 아래에 있는데 좌우에 모두는 사람이 거주하는 촌(村)이다.

나-6) 천계사(天界寺)은 환회문(歡會門) 바깥 남쪽에 있는데 절 입구는 북향(北向)이다. 절로 들어가는 서남쪽에 석실(石室)이 있다. -중략- 절의 서쪽에 안국사(安國寺)가 있는데 국가의 중요한 문서는 모두 이곳에 보관해 둔다.

나-1)·2)의 임해사(臨海寺)·호국사(護國寺)는 국왕의 기도처로, 나-3) 원각사(圓覺寺)는 국왕이 조상 제사를 지내는 사찰이라고 명시하였다. 반면 나-4)~6)의 광엄사(廣嚴寺), 동선사(東禪寺), 천계사(天界寺) 등은 위치와 주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 밖의 천왕사(天王寺) 등 13개 사찰은 나-4)~6) 형식과 동일하므로, 임해사와 호국사·원각사는 이와 다른 성격의 사찰임을 암시하고 있다. 원각사의 규모가 매우 크고, 여러 사찰 중에서 으뜸이다²⁶⁾라고 한 것으로 보아 국가 차원에서 관리 또는 의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6)의 안국사는 나라의 중요한 공문서를 일체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찰은 왕실과 관련이 깊고,²⁷⁾

25) 『中山傳信錄』은 청(淸) 강희(康熙) 58년(1719) 상경(尙敬)을 류큐 중산왕(中山王)으로 책봉한 사절단 부사였던 서보광(徐葆光)이 기록한 사행록이다. 서보광은 임무를 마무리하고 강희제에게 「冊封琉球圖本」을 바쳤고, 강희 60년(1721)에 이 책을 증보하여 6권본 『中山傳信錄』을 간행하였다고 한다. 인하대학 교 한국학연구소 편(2013)『小方壺齋輿地叢鈔 琉球篇』해제, 글로벌콘텐츠, pp.10-11

26) 『中山傳信錄』, pp.66-67

그 밖의 사찰은 일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으로부터 전래받은 『고려대장경』 인경본은 어디에 보관하였을까. 세조로부터 하사받은 인경본을 봉안하기 위해 상진왕(尙眞王) 26년(1502)에 왕성 밖에 있는 원각사 총문(總門) 앞에 인공으로 연못을 조성하고, 그 가운데 단함지(丹鑑池) 중지도(中之島)에 장경각(藏經閣)을 지어 안장하였다.²⁸⁾ 성종 22년에 류큐 상원왕(尙圓王)이 국서를 보내어 안국사는 개국 초기의 선찰(禪刹)로서 복을 비는 신령한 도량이지만 법보(法寶)를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서 대장경 인경본을 요청한²⁹⁾ 바 있다. 원각사와 안국사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류큐에 전래된 대장경은 왕실의 특정 사찰이나 장소에 보관된다. 즉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대장경을 안치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사찰이나 인근 사찰에 봉안되어야 류큐국왕이 대장경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각사와 안국사 등에 봉안된 것으로 짐작된다. 류큐왕실은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왕실의 권위를 높임과 동시에 불교 정착을 위해 불교 경전의 결집체인 『고려대장경』 인경본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3. 동아시아 정세변화와 『고려대장경』 傳來

조선과 류큐와의 교류에 있어서 적어도 외교문서의 형식 상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차등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즉 조선이 류큐에 보낸 것은 대부분 서간문(書簡文) 형식을 따르는 반면, 류큐에서 조선으로 보낸 것은 대부분 자문(咨文) 형식을 따르고 있어³⁰⁾ 대조되기 때문이다. 사신 호칭에 있어서 류큐로부터 온 사신은 대부분 왕사(王使), 국사(國使), 사(使)로 불린 반면 일본에서 온 사신은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 구주절도사(九州節度使), 대마도주(對馬島主) 특송사(特送使) 등 다양하게 불렸다. 이 같은 차이점 때문에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계층적(階層的)이며 다원적(多元的)이었음에 비하여, 류큐와의 교린관계는 일원적(一元的) 성격을 갖고 있다. 조선은 류큐를 하나의 독립적인 외교 대상국으로 상대하였다.³¹⁾ 이러한 위상은 류큐인

27) 고려 불교계에서는 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모신 왕실건물을 진전(影殿)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좀 더 성스러운 종교적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 거의 사찰을 두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진전을 원찰(願刹)이라고 부르고 있고, 명복을 기원하는 건물이라는 뜻에서 원당(願堂)이라 부른다(허홍식(1996)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p.59). 이러한 의미에서 임해사, 호국사, 원각사 등도 류큐왕실의 원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8) 이원순(1995) 앞의 논문, p.36

29) 『성종실록』 권220, 성종 22년 12월 2일

30) 이원순(1995) 앞의 논문, p.4

들을 일본인과 동일하게 접대하는³²⁾ 것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 양국 외교에서 일원적 성격이 파행적으로 전개되기도 하는데 성종대 이후 집중된다. 당시 류큐의 국내 정치 상황이 다소 혼란스럽고, 여기에 일본이 개입하는 등 여러 요인이 있다.³³⁾ 지면관계상 각 왕대별 양국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할 수 없으나, 명종대를 전후하여 교류양상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그것은 각종 물자의 이동 경로가 바뀐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조선과 류큐의 교류 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횡수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지만,³⁴⁾ 현존하는 자료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전체적인 교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유일 자료로서 그 대강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각 분야별로 구분해 보기로 하자.

<표 1> 조선-류큐간 교류양상

	전기(1392~1545)	후기(1546~1863)
피로인 송환 및 표류인 쇄환	45	21
교역 및 사신방문	149	9
대장경 및 서적교류	13	0
왜국과의 외교	49	9
외교문제 논의	69	10
선박기술교류	4	0
중국과의 사신 교류	6	13
기타	12	10

<표 1>의 전기(1392~1545)는 조선 건국 직후부터 명종 원년까지이다. 후기(1546~1863)는 명종 원년 이후부터 고종 즉위 직전까지이다.³⁵⁾ 전자는 해상을 통해 조선과 교류를 주로

31) 손승철(1994) 앞의 논문, pp.100-101

32) 『增正交隣志』권1, 接待日本人舊定事例

33) 하우봉(1994) 앞의 논문, p.194

34) 예를 들어 사행 과정의 불분명, 이른바 위사행위(僞使行爲) 중첩, 류큐국왕사인지도 애매한 경우 등으로 횡수로 사행을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의 한일관계사료 내용에 있어서 조선전기에 비해 후기로 갈수록 실록의 기사가 정치적 내용에 치우쳐 다양성을 잃게 되고 기록이 빈약하게 된 것을 근거로 한다. 손승철(1994) 앞의 논문, p.97 및 손승철·김강일(1998)『중·근세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경인문화사, p.316

35) 조선과 류큐간의 통교를 세 시기로 구분하는 경우와 4단계로 나누어 보는 경우가 있다. 먼저 세 시기는 ① 양국국왕간의 직접통교의 시기(1392~1418), ② 쓰시마나 규슈의 중간세력에 의한 위사(僞使)의 시기(1423~1524), ③ 북경을 통한 우회의 시기(1546년 이후)로 나누고 있다. 한편 4단계 제1기는 태조대에서 세종 12년까지 직접통교시기(直接通交時期), 제2기는 세종 13년부터 세조대까지로 일본인에 의한 통교 중계시기(通交中繼時期), 제3기는 성종 2년부터 중종대까지로 위사(僞使)의 시기(時期), 제4기는 명종 원년 이후 인종 14년까지로 명(明)을 경유한 간접통교시기(間接通交時期)로 구분한다. 손승철(1994),

하던 시기로서 가끔 쓰시마(對馬島) 또는 하카다(博多) 상인에 의해 조선과 류큐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후자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중국 북경을 통하여 우회(迂回)하기 때문에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 전자는 해상 루트이고, 후자는 육상 루트라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대장경을 비롯한 서적 교류와 관련하여 전기는 13회인 반면 후기는 1회도 없다. 일본에서 대장경 구청 관습은 임진왜란 이후 자체적으로 대장경을 판각하면서 사라졌지만, 태조 3년부터 명종 11년 마지막 구청 사례에 이르기까지 구청건수는 107건이라는 사실과는 크게 대조된다.³⁶⁾ 그리고 전기와 후기 항목 중 ‘중국과의 사신 교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항목에서 교류의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큰 차이가 난다. 그 중에서도 ‘교역 및 사신방문’은 149회에서 9회, ‘왜국과의 외교’도 49회에서 9회로 감소하였다. 전기에 비해 후기에 무려 1/4로 감소하였다.³⁷⁾ 이는 명(明)의 해금정책(海禁政策)이 풀리면서 해상교류 주도권이 류큐에서 명으로 넘어간 이유가 가장 크다. 아울러 조선·류큐간 교역 필요성이 축소된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대장경 전래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16·7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명(明)은 건국 직후인 15세기에 해금정책을 펼치면서 자국민들의 해외 진출을 막았고, 류큐 우대정책을 전개하면서 류큐에 의한 대교역시대가 도래하였다. 류큐는 이를 바탕으로 교역국가로 변영을 이룰 수가 있지만 16세기에 들어서면 쇠퇴하게 된다. 그것은 명이 조공횟수를 2년에 1회로 제한하자 조공무역의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³⁸⁾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포르투갈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말라카 등의 주요 교역 항구를 점령하였다. 유럽 일부 국가가 이 지역의 일부를 점유하게 되었고, 명의 해금정책 완화로 중국 상인에 이어 일본 상인도 진출하게 됨에 따라 류큐는 동남아시아 교역에서 철퇴를 맞게 되었다. 여기에 일본 국내 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데, 이 시기 창궐한

위의 논문, p.115 ; 하우봉(1994) 앞의 논문, p.147

- 36) 조선에 『고려대장경』 구청 주체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왕사(國王使) 29회(위사 22회), 호족 106회(위사 24회)에 대응한 것과 비교해 보면 류큐의 구청 건수가 얼마나 미미한가가 잘 알 수 있다. 한문중(2002) 「조선전기 일본의 大藏經求請과 韓日間の 文化交流」, 『한일관계사연구』17, pp.11-14
- 37) 당시 양국간의 교류추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이 참조된다. “직간접으로 이루어진 393건의 통교 가운데 약 73.3%인 288건이 薩摩가 류큐에 침입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98.6%인 284건이 15세기 전후에 이루어졌다. 특히 세조(1455~1568) 즉위 연간에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져 채위 14년 동안 69건 즉 1년에 약 5건 즉 2.4개월에 한 번씩 교류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와 같이 양국간의 교류가 피크에 다다른 것은 조선 세조 治世의 대부분이 琉球의 尙泰久(1454~1460)라는 것과 두 왕 모두 好佛의 君主였다는 데서 눈길을 끈다고 하겠다.” 홍종필(1998) 「오키나와(沖繩)의 舊國寶였던 朝鮮鐘(興海大寺鐘)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논총』16, 명지대, pp.388-389
- 38) 당시 명은 매우 소극적인 대외정책 특히 해금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조공 자체 실리보다는 중주국과 번속국의 원칙을 고수하는 방면으로 추진되었고, 번속국의 입공 시기·선박의 수·인원·입공 항구·경로·기일 등을 철저히 제한되었다. 입공 시기를 예를 들면 류큐는 2년에 한 번만 조공단을 파견할 수 있었으며, 조선·안남·참파는 3년 1공, 일본은 10년 1공으로 정해졌다. 김상범(2003) 「중국, 해상 실크로드의 진원지」 『바다의 실크로드』 청아출판부, pp.66-67

이른바 후기왜구는 류큐의 대외활동을 방해하는 위협세력이다. 그리고 남서해상의 항행권(航行權)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사스마(薩摩州)와 해외교역의 주역으로 변성한 하카다(博多)가 류큐의 중계무역 기반을 점점 약화시켰다. 1644년 명이 멸망하고 청(淸)이 대륙을 재통일하자 이러한 상황은 급변하였다. 청은 명보다도 적극적으로 해금정책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다.³⁹⁾ 임진왜란 등으로 조선과 일본의 외교단절, 명·청 교체기, 일본의 류큐 침공, 또한 동남아 해상교역 체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류큐의 해상교역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위사(僞使)문제이다. 조선에 대장경 구청과 관련해 일본은 국왕, 호족, 지방 세력들이 각기 교류를 추진한⁴⁰⁾ 반면 류큐는 왕실을 통해서만 추진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지방세력 및 상인들이 류큐사신으로 위장하고 조선에 대장경을 구청하였다. 이 문제는 양국의 통교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심각하다. 세조와 성종대를 거치면서 위사는 쓰시마(對馬島) 또는 하카다(博多) 등지에서 매우 빈번하게 내왕하게 되었다. 조선은 류큐에서 온 사신 중 위사에 의한 불법 교류를 막고자 하였다. 당시 일본은 대장경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구청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 행위를 일삼기도 하였다. 대마도인, 큐슈(九州) 또는 하카다 상인들이 류큐사신을 빙자하여 『고려대장경』 인경본을 비롯하여 각종 물자를 하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위사의 『고려대장경』 수시 구청은 조선에 심각한 재정 압박을 주었을 것이다. 대장경 인경은 그 절차가 번거롭고, 사람들의 공역이 많이 소요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⁴¹⁾ 예를 들면 세조 6년에 해인사에 소장된 『고려대장경』 인출(印出) 과정에서 종이 확보를 위해 각 도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배정하였다. 대장경 50권을 인출하기 위한 인출지(印出紙)의 공납(貢納)은 각 도별로 책정되었는데, 충청도에 종이 51,126권, 떡 875정, 전라도에 종이 99,004권, 떡 1,750정, 경상도에 종이 99,400권, 떡 1,750정, 황해도에 종이 11,126권, 떡 875정으로 모두 관(官)에서 스스로 준비하여 해인사에 보내라⁴²⁾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각종 물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백성을 괴롭힐까 염려하는 등⁴³⁾ 국가적으로도 번잡하였다. 『고려대장경』 인경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부담은 물론 절차상 번잡하므로 매번 하사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39) 하우봉(1994) 앞의 논문, pp.136-138 ; 이원순(1995) 앞의 논문, pp.29-33

40) 일본에서 『고려대장경』 구청 배경은 크게 4가지 구분된다. 사찰 창건에 따른 대장경 안치, 호족 개인의 대장경에 대한 소유욕, 일본 지배층의 조선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 전란으로 황폐해진 신사(神寺)·불각(佛閣) 등을 재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청하였던 것이다. 최연주(2008) 앞의 논문, pp.141-142

41) 최연주(2012) 「조선시대 『高麗大藏經』의 印經과 海印寺」 『동아시아불교문화』 10, pp.162-165

42) 『세조실록』 권8, 세조 3년 6월 20일

43) 『세조실록』 권8, 세조 3년 9월 23일

위사 접대와 공찬(供饌)의 지출 및 그들에게 하사하는 회사(回賜) 부담 또한 크다. 류큐는 사찰 건립을 위한 재정적인 원조까지도 요청하기도 했다. 조선은 일본과 류큐의 대장경 구청에 대해 대외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진행된 부분도 일부 있지만,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요인은 조선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류큐 국내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조선 전기에 류큐의 대장경 구청은 삼산 통일을 계기로 왕권 강화와 통일 왕조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류큐는 17세기를 전후하여 선불리 조선에 접근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원조를 무시한 상황이라 일본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과 일본의 외교 단절 직후인 1609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출병 허가를 받은 사쓰마군(薩摩州軍) 3천명이 류큐를 침공하여 그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⁴⁴⁾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불교와 관련된 제 시책(時策)이 변하였을 수도 있다. 류큐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⁴⁵⁾ 일본도 대장경을 자체적으로 판각하기 시작해 류큐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6세기를 거치면서 조선-일본, 류큐-명, 일본-류큐 등 동북·동남아시아의 국제 관계 속에서 각 국가간의 교류가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이러한 정세 변화에 따라 조선과 류큐의 교류는 북경(北京)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양국간 육로 이동은 기존 명과 조선의 사행 경로가 활용되었을 것이다. 당시 사행 경로는 한양(漢陽)-압록강(鴨綠江)-탕참(湯站)-개주성(開州城)-용봉참(龍鳳站)-연산참(連山站)-요동성(遼東城)-안산역(鞍山驛)-우장역(牛莊驛)-판교역(板橋驛)-십삼산역(十三山驛)-사하역(沙河驛)-산해형(山海衛)-유관(榆關)-영평(永平)-북경(北京)으로 추정한다.⁴⁶⁾ 류큐로 갈려면 북경을 다시 출발하여 항주(杭州)-복주(福州)·천주(泉州)를 거쳐 나하(那覇)로 도착하는 경로를 밟았을 것이다.⁴⁷⁾ 이 경로는 거리상·시간상으로 힘든 여정이다. 그렇다면 이전의 양국 교역 경로는 어떻게 운용되었을까. 『海東諸國記』⁴⁸⁾를 통해 당시 양국의 사행노정(使行路程)과 거리는 알 수 있다. 경상도 동래현(東萊縣)의 부산포(富山浦)에서 출발하여 류큐도(琉球都)까지 이르는 노정을 구간별로 정리해 보면, 동래현 부산포-(48리(里)) 대마도(對馬島) 도이사지(都伊沙只)-(19) 박월포(船越浦)-(48) 일기도(一岐

44) 高良倉吉지음, 원정식 옮김(2008)『류큐왕국』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130

45) 『中山傳信錄』, “蓋其國僧皆遊學日本 歸教其本國子弟習書”

46) 엄경홍(2004)「鄭夢周와 權近의 使行詩에 表現된 國際關係」『한국중세사연구』16, pp.183-193

47) 橋本 雄(2006)『海 海上の道』『うるま ちゅら島 琉球』九州國立博物館, pp.9-10

48) 『海東諸國記』는 성종 2년 12월에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것으로 1권 1책이다. 그 후 성종 4년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고, 연산군 7년에 병조판서 이계동이 류큐사신의 방문이 잦으니 그들의 풍토, 인물, 세대에 대하여 조사하여 일부 내용을 첨가하여 편찬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조선 전기의 일본과 류큐의 교류를 살펴보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島) 풍본포(風本浦)-(5) 모도이포(毛都伊浦)-(13) 비전주(肥前州) 상송포(上松浦)-(165) 헤라무(惠羅武)-(145) 대도(大島)-(30) 도구도(度九島)-(55) 여륜도(興論島)-(15) 류큐도(琉球都)로서 도합 543리(里)이다.⁴⁹⁾ 이러한 경로로 류큐왕사가 부산포에 도착하였을 때 예조에서 3품 조관(朝官)으로 선위사(宣慰使)를 임명하고 통사(通事)를 같이 파견하여 상경하기까지 접대하도록 하였다. 부산에서 대구-문경-충주를 거쳐 한양까지 이동해야 한다. 결국 사신은 류큐도로부터 부산포까지 해로와 부산포에서 한양까지 육로를 각각 이동하였다.

『고려대장경』은 총 80,242매로서 인경(印經)에는 16만 여장의 종이가 필요하며, 제책(製冊)할 경우 1,513종 6,807권으로 편성되는 거질이다. 6,807권 인경본을 운송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로는 대규모 화물을 일시에 운송할 수 있고, 육로보다도 짧은 기간에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장경을 육로로 이동하기란 불가능하다. 해로를 통해 운송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류큐는 제해권을 상실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구청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리해 보면 1545년을 기점으로 조선과 류큐의 대장경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양국의 교류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류큐로의 『고려대장경』 인경본 전래가 중단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교류 경로가 변하였기 때문이다. 해로에서 육로로 변하면서 거질의 『고려대장경』을 운송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류큐가 또한 류큐가 해상주도권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고려대장경』 인경본을 구청할 수 없었다.

4. 結論

14세기 이후 류큐는 불교와 사상,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선에 『고려대장경』 구청(求請)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였다. 고려 창왕 원년(1389)에 류큐 중산왕 찰도가 스스로 신(臣)이라 칭하는 표문을 보내와 류큐국과 첫 교류가 있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1429년 류큐가 통일왕국으로 성립되자 양국 교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6만장에 이르는 거질(巨帙)의 『고려대장경』 인경본(印經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류큐로 보냈다는 사실은 단순히 물자의 전달 차원이 아니다. 대장경을 구청해 간 것은 세조 1년(1455)을 비롯하여 총 9회에 달하는데, 조선이 대장경 구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던 이유는 문물이 우수함을 과시하려는 의도와 사대교린체제 하에 같은 중화문화권의 형제국가라는 명분도

49) 『海東諸國記』 「류큐국기」 도로리수

있었다. 대장경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 경전의 전래는 류큐의 불교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류큐가 『고려대장경』을 필요로 했던 배경은 무엇일까. 14세기 중반 삼산시대를 거친 류큐는 상파지가 즉위하자 수리성을 본격적으로 정비하여 왕권강화에 노력하면서 1429년 남산까지 멸망시켜 비로소 통일된 류큐가 성립되었다. 류큐 불교는 삼산의 통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제1상씨 왕조의 상파지로부터 열도 전체를 통일한 제2상씨 왕조의 상진(尙眞)에 이르기까지 대략 100여 년간 류큐왕실은 중국의 정치제도를 수입함과 동시에 불교를 통일왕조의 사상적 구심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통일 이전 삼산은 각각 종족 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왕조의 출범에 따라 보편적 이념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불교를 내세워 종교 사상적 통일을 도모하면서, 그들의 통치 기반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통일을 이룬 류큐는 왕권강화와 통일 왕조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전래된 대장경은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에 안치하였다. 불교 정착은 물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려는 성격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당시 가장 우수한 『고려대장경』 인정본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조선 건국 직후부터 명종 원년까지는 류큐와 조선은 해상을 통해 교류하였다. 때로는 쓰시마 또는 하카다 상인에 의해 교류가 중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6세기를 전후하여 기존 방식이 아니라 중국 북경을 통하는 우회 방식이 등장한다. 전자는 해상 루트이고 후자는 육상 루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대장경 교류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앞 시기에 13회 교류가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중대한 요인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와 밀접하다. 명(明)은 해금정책(海禁政策)을 펼치면서 자국민들의 해외 진출을 막고, 류큐 우대정책을 전개하면서 류큐에 의한 대교역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해금정책 완화로 중국 상인에 이어 일본 상인도 진출해 오자 류큐는 동남아시아 교역에서도 철퇴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류큐간 교역도 축소되는데, 전기에 비해 무려 1/4로 감소하였다. 한편 조선은 재정적인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대장경』 인경을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므로 류큐의 구청에 매번 응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리고 류큐의 국내 정세 변화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류큐는 입진왜란 당시 일본의 원조를 무시한 상황이라 일본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선불리 조선에 접근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일본에서 대장경을 자체적으로 판각하기 시작하면서 류큐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장경을 구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고려대장경』은 총 80,242매로서 인정(印經)에 16만장의 종이가 필요하다. 제책(製冊)할 경우 1,513종 6,807권으로 편성되는 거질로서, 육로로 한꺼번에 이동하기란 불가능하다. 해로는 육로보다도 대규모 화물을 일시에 운송할 수 있고, 운송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되었을 것이다. 조선-류큐간 교류에 있어서 류트의 변경은 조선-일본, 류큐-명, 류큐-일본 등 동북·동남아시아의 국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류큐가 동아시아 해역에서 그 주도권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고려대장경』 인정본을 구청할 수 없었다.

【參考文獻】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海東諸國記』, 『增正交隣志』, 『琉球國由來記』

<단행본 및 논문>

김상범(2003) 「중국·해상 실크로드의 진원지」 『바다의 실크로드』 청아출판부

손승철(1992) 「朝鮮前期 對琉球交隣體制的 構造와 性格」 『서암 조항래교수 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아세아문화사

_____ (1994) 「조·유(朝·琉) 교린체제의 구조와 성격」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샘

손승철 외(1998) 『朝鮮·琉球關係史料集成』 국사편찬위원회

손승철·김강일(2010) 「중·근세 동아시아 해역세계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양수지(2012) 「세조대의 유구사신 응접과 문물교류」 『동북아 문화연구』 33

엄경흠(2004) 「鄭夢周와 權近의 使行詩에 표현된 國際關係」 『한국중세사연구』 16

윤용혁(2009) 「오키나와 출토의 고려 기와와 삼별초」 『한국사연구』 147

이원순(1995) 「『歷代實案』을 통해서 본 朝鮮前期의 朝琉關係」 『국사관논총』 65

이현중(1981) 「朝鮮初期의 對外關係」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2013) 『小方壺齋輿地叢鈔 琉球篇』 글로벌콘텐츠

정성일 외(2000) 『朝鮮과 琉球』 아르케

西谷 正(1981) 「高麗·朝鮮 兩王朝と琉球の交流-その考古學的研究序説」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26

최규성(1998) 「高麗 기와제작기술의 琉球傳來」 『古文化』 52

최연주(2006) 『高麗大藏經研究』 경인문화사

_____ (2008) 「『高麗大藏經』의 韓日交流와 인식추이」 『일본근대학연구』 19

_____ (2012) 「조선시대 『高麗大藏經』의 印經과 海印寺」 『동아시아불교문화』 10

최인택(2000) 「한국에 있어서의 오키나와 연구의 과제와 전망」 『일본학년보』 9

하우봉(1994) 「朝鮮前期 對琉球關係」 『국사관논총』 59

한문중(2002) 「조선전기 일본의 大藏經求請과 韓日間の 文化交流」 『한일관계사연구』 17

윤용혁(2012) 「우리소에성(浦添城)과 고려·류큐의 교류사」 『사학연구』 105

허경진·조영심(2012) 「조선인과 류큐(琉球)인의 소통 양상」 『일어일문학』 54

홍종필(1998) 「오키나와(沖繩)의 舊國寶였던 朝鮮鐘興海大寺鐘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논총』 16, 명지대

高良倉吉 지음, 원정식 옮김(2008) 『류큐왕국』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馬場久幸(2014) 「『高麗再雕大藏經』の日本流通と活用」 『石堂論叢』 58

上原 靜(2001) 「오키나와(沖繩諸島) 출토 고려계(高麗系) 기와에 대하여」 『비교문화연구』 7

九州國立博物館編(2006) 『うるま ちゅら島 琉球』 九州國立博物館

安里 進(2007) 「琉球왕국의 역사와 문화」 『탐라와 琉球왕국』 국립제주박물관

外間守善, 심우성 옮김(2008)『오кина와의 역사와 문화』동문선
秋山謙藏(1935)「琉球國王の勃興と佛教」『日支交渉史話』内外書籍

논문투고일 : 2014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7월 20일

〈要旨〉

朝鮮과 琉球의 交流樣相과 『고려대장경』

류큐는 조선에 『고려대장경』 구청(求請)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였다. 불교를 통일왕조의 사상적 구심점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통일 이전 삼산은 각각 종족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왕조의 출범에 따라 보편적 이념이 필요했던 것이다. 통일 왕조라는 정당성 확보와 왕권강화를 위해 불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불교 정착을 위해 『고려대장경』 인경본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16세기 명(明)이 해금정책(海禁政策)을 실시하자 류큐에 의한 대교역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명의 해금정책 완화로 중국 상인에 이어 일본 상인도 진출해 오자 류큐는 동남아시아 교역에서도 철퇴를 맞게 되었다. 조선과 류큐의 교류가 무려 1/4로 감소하였고, 교역로는 해로에서 육로가 바뀌었다. 『고려대장경』을 인경하면 16만장의 종이가 소요되어 6,807권으로 편성된다. 조선은 『고려대장경』 인경을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므로 매번 하사해 주는 것은 어려웠다. 그리고 대규모 대장경을 한꺼번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육로로는 불가능하며 해상을 이용해야 한다. 여기에 류큐가 해상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자, 『고려대장경』 구청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추론된다.

Flow patterns and 『Tripitaka Koreana』 in Joseon dynasty and Ryukyu kingdom

Ryukyu kingdom of the Joseon dynasty 『Tripitaka Koreana』 hoped to convey. Ideologically unified dynasty was the focal point of Buddhism is strongly encouraged. Before the Unification, each to have faith. However,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universal religion Buddhism, to expect them to work. The Ryukyu kingdom reunification of the justification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Buddhist kingdom, more active protection. In addition to political stability and to settle the Buddhist 『Tripitaka Koreana』 who will need a printed copy.

Marine Exchange of the 16th century ended with the Ryukyu kingdom. That policy has changed because of the Ming(明) dynasty lost the initiative. Exchanges Joseon dynasty and Ryukyu kingdom was reduced by 25%. Overland trade from the existing sea routes have changed. When you print the 『Tripitaka Koreana』 paper consumption is 16 million, and the 6807 volume of the book. Expensive to print because the print request can not give every time. And large print copies of the Tripitaka, it is not possible to go into the land. Eventually lead to the loss at sea of the Joseon dynasty of Ryukyu kingdom could not ask for 『Tripitaka Koreana』.